

이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장 동정자료



■ 매수 : 5매 ■ 사진 : 일정종료직후 제공 웹하드(press.webhard.co.kr) ID/PW:press1

담당 :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

언론담당관	2133-6205	신문팀장	2133-6207	담당자	2133-6253
이준형		김경진		정수민	

오세훈 시장, 25일(토) 여의도 러너스테이션 점검 및 「2024 한강대학가요제」 관람

-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토) 17시 30분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아 지난 화요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 문을 연 '러너스테이션'을 둘러보고, 18시부터는 물빛무대에서 펼쳐진 「2024 한강대학가요제」를 관람했다.
- 여의나루역사 내에 마련된 '러너스테이션'의 베이스캠프, 플랫폼 등을 점검하고 무동력 트레드밀, 미디어보드 등을 체험한 오 시장은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된 '러너스테이션'처럼 앞으로 역사 공간을 시민이 여가, 문화, 휴식, 건강 등을 다채롭게 누리는 공간으로 계속 재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1일(화) 개관한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B1~M1층 일부 공간)'에는 물품보관함, 탈의실, 파우더룸, 워업공간 등이 조성돼 있으며 다음 달 말까지 요일별 러닝 클래스, 주말 어린이 러닝 클래스, 개인별 최고기록 완성 클래스 등 스포츠 브랜드 소속 코치가 참여하는 전문 러닝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이어 「2024 한강대학가요제」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한강공원(물빛무대)로 이동해 경연을 관람하다 무대에 오른 오 시장은 즉석에서 이탈리아 가곡 '오솔레미오(O sole mio)'를 불러 행사의 분위기를 달궜다. "12년 만에 다시 부활한 '대학가요제'를 앞으로 더 많은 분과 함께 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보겠다"며 "청년에게 늘 힘주는 서울시를 만들 테니 청년 정책도 관심 갖고 잘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날 대학가요제에서는 2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락, 인디, 발라드,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는 11팀의 본선 무대가 열렸으며,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2팀에게 총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 관련 부서 :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전략팀장 여은하 ☎2133-2720

한강사업총괄부 한강문화관광과장 안신훈 ☎3780-0765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토) 오후, 지난 화요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 문을 연 '러너스테이션'을 찾아 베이스캠프에 마련된 무동력 트레드밀을 체험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토) 오후, 지난 화요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 문을 연 '러너스테이션'을 찾아 러닝 랭킹보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토) 18시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한강대학가요제'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 경연을 관람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토) 18시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한강대학가요제'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토) 18시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한강대학가요제' 무대에 올라 이탈리아 가곡 '오솔레미오'를 열창하고 있다.